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코로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부 30 박시백의 세계유산순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복종의 여자)	00 KBC 모닝와이드 55 덕터365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55 중계방송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40 SBS 뉴스
10 20 시사인사이드	00 2014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40 한국인의 밥상(재)		00 중계방송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4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재)	00 SBS12뉴스 45 건강클리닉
1 40 뉴스 특급	00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00 생생정보통 플러스		45 날씨와 생활 50 토크콘서트 화통
2 50 직언직설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역사저널 그날(재)	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50 SBS 뉴스
3	00 KBS 뉴스 10 생생최선(재)	00 키오카(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0 MBC 경제 뉴스 10 옹가 소나타 4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이야기	00 미래한국리포트 특집 SBS 이슈 인 사이드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제조사(재)	00 TV 유치원 콩다콩 30 마법 천자문	30 독? 똑! 키즈쿨	00 바이클론즈 30 우리끼리 탐구생활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기차 추추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구정 백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헌법의 TV 연예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0 수목드라마 (아이언맨)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스페셜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 백)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1 0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라인 40 KBS 특선(쌀의 반란)	00 뮤직뱅크 인 멕시코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일대일
12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30 넷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10 생활의 발견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40 KBS 파노라마(재)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①:10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하이라이트



# 시청률의 승패는 '스토리'

MBC '오만과 편견' 12.1% ... 안방극장 자존심 지켜

역시 답은 이야기에 있다. MBC TV 월화극 '오만과 편견'이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며 집체의 늪에 빠져있던 지상파 월화극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스타 캐스팅,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지상파 평일 드라마들이 최근 잇달아 시청률과 작품성에서 참담한 성적률 거두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27일 시작한 '오만과 편견'이 출발과 동시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0일에는 드디어 KBS 1TV '가요무대'를 제치고 월요일 밤 10시 시청률 왕좌를 차지했다. 11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오만과 편견'의 시청률은 12.1%로, '가요무대'의 11.8%를 앞질렀다. '가요무대'는 지난 4월까지 무려 7주 연속 방송3사 월화극을 제치고 월요일 밤 시청률 1위 행진을 이어갔다.

방송3사의 간판 프로그램인 밤 10시 드라마가 경쟁력 저하로 '가요무대'에게 시청률이 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지난 두달간 이어진 것이다.

10일에도 '오만과 편견'이 0.3%포인트 차로 간신히 '가요무대'를 이기긴 했지만, SBS TV와 KBS 2TV의 월화극인 '비밀의 문'과 '내일도 칸타빌레'의 시청률은 각각 5.3%와 5.8%로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다.

그 와중에 '오만과 편견'의 행보는 희망적이다. 화려한 스펙을 내세운 '비밀의 문'과 '내일도 칸타빌레'가 출구 없는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달리 '오만과 편견'은 끝까지 버티지 않는 내실있는 이야기로 끌어올린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진혁과 백진희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는 방송 전까지 별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주인공의 스타성도 떨어지고, 검사들의 이야기라는 소재도 별반 새롭지 않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드라마는 불만했다. 무엇보다 개별

캐릭터들이 살아있고, 그들의 과거 인연과 각자의 사연이 호기심을 유발하며 드라마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코미디를 적절히 버무린 솜씨도 평균 이상이다.

검찰 중에서도 지방인 인천지검을 배경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임팩트가 상당히 약해보이는 민생안정팀의 구성원들이 주인공인 까닭에 드라마에는 거창한 메시지나 목표도, 이 악물고 맞서야 하는 거대 악도 없다.

케이블채널에서 '닥치고' 악을 호쾌하게 소탕하는 '나쁜 녀석들'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현실에서 지방 검찰청 민생안정팀의 이야기까가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보였지만, '오만과 편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상파채널 드라마의 보편성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뒤를 굽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영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라이징 스타'인 최진혁과 백진희의 성장세와 함께 최민수, 장광선, 손창민, 김나은 등 중견들의 목격하면서도 유연한 연기, 신예 이태환과 최우식 등의 파릇파릇한 매력에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배우들의 연기 하모니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누구 하나 튀거나 처지는 지점 없이 출연진 전체가 적재적소에서 제 몫을 제대로 해내면서 완성도를 배가하고 있다. 한두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기대지 않고 팀 플레이어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이제 5부가 방송돼 드라마가 웅두사미로 끝날지, 끝까지 잘 굴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야기 역시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드라마의 출발점인, 한열무(백진희 분) 동생을 죽음으로 문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부까지 무리 없이 전개된 드라마는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인다. 이외의 다크호스가 결승선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마이크의 존재 이유 듣는 이들에게 있죠”

김제동, 토크콘서트 ... 재치·입담에 연일 매진



마이크를 잡아야 그림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있다. 방송인 김제동(40)도 마찬가지다.

2009년 시작한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는 올해로 여섯번째 시즌을 맞았다. 그동안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제동의 입담에 빠져들었다. 토크콘서트는 이번 시즌 중간에 200회를 맞는다. 올해 서울 지역의 콘서트 표는 이미 매진됐다.

그는 시즌마다 매진되는 데 대해 “제 진행 능력이 있긴 하겠지만 (웃음) 예부터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힘이 발휘된 것 같다”면서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제동은 이어 “사회자는 무당의 역할”이라면서 “사회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이야기와 사회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나 보수진보에 편향되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계적 중립에 서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제동은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힙 차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면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사람에게 다가갈 일시켜주는 것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제동은 과거 정권의 외압으로 방송에서 출몰이 하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어느 날 방송을 하기 싫어졌어요. 그때 마침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됐습니다. (타의로) 방송을 못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는 말했는데 타의에 의해서 인성이 결정될 만큼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지난달 신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던 김제동은 그 이야기도 언급했다.

“세월호가 사라졌고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라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나고 합니까. 저도 사라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살아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가끔 밤에 합니다.”

그는 이어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사람들을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슬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에도 “팽목항에 내려갔을 때 두 세 살 어린 (희생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이 제게 ‘오빠는 우리한테 정말로 고운 사람이니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김제동은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도의 정치 행위에 가깝다”면서 “(현실) 정치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나이로 41세인 김제동은 “요세 에스프레소를 마신다.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연애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습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7:15 콘(재)	11:20 세계테마기행
07:30 책과 팡(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08:00 똥똥똥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08:20 똥똥똥 뽀로로(재)	13:10 부모광장(재)
08:35 방귀대장 풍뎡이	13:40 내 이름은 펄기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50 뛰뛰빵빵 울리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시계마을 타기톡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15 치료와 친구들
09:35 따개비 루	14:30 미술탐험대

14:45 미앤미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15:05 어린왕자	19:50 피자부활전 하프타임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16:00 똥똥똥 유치원(재)	<인도양의 숨겨진 보물섬 레우니움>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16:35 원더볼츠	21:50 EBS 다큐 프라임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극한직업
17:00 방귀대장 풍뎡이(재)	23:35 세계 전문목 아틀라스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세계의 집>
17:30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17:45 똥똥똥 뽀로로	24:10 한국영화특선 <만주>
18:00 생방송 토크! 보나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 I>	11:4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1:50 " <국어 II>	12:1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0 " <영어-듣기>	
02:30 " <수학 II>	14:00 올림픽스 <영어독해의 기본 II>(재)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 <수학 II>	
04:10 " <과학>	15:40 뉴 탐스런 <한국지리>	
05:00 " <한국사(해)>(재)	16:30 " <과학>	
05:50 2013 포스 <수학 I>	17:20 " <한국사(해)>	
06:40 암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포스 <수학 II>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암축탐스런 <생명과학 I>	
08:20 올림픽스 <영어독해의 기본 II>(재)	19:50 포스 <문학 II>	
09:10 " <수학 II>(재)	20:5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 <영어-듣기>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5:50 "	<사회3-2>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6-2)	16:20 "	<사회4-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5-2>
08:30 한경 TESAT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국어 I①②>	<사회6-2>
09:10 TV 중학 <국어 II>	09:50 " <수학 I(해)>	<전과목 6-2>
10:30 " <도덕 I>	10:30 " <수학 II(해)>	<영어3-2>
11:10 " <국어 ③④>	11:10 " <수학 ②(해)>	<수학3-2>
11:50 " <수학 ①(해)>	11:50 " <수학 ②(해)>	
12:30 중간·기말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1-2>	12:30 " <과학1-2>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3:10 " <과학1-2>	13:50 " <과학2-2>	19:40 에이틴 백만이의 지구뉴스
13:50 " <과학2-2>	14:30 " <역사2-2>	20:00 EBS 인문학 특강
14:30 " <역사2-2>	15:20 초등기말학업성취도평가 대비	20:50 EBS 기획시리즈
15:20 초등기말학업성취도평가 대비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동물산곡 <역사(해)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중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음 윤9월 20일 丁亥)

**子** 36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범한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48년생 상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60년생 요령을 바라는 것은 허망하다. 72년생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84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6, 04

**午** 42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게 하기에 충분하다. 54년생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게 되리라. 66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78년생 별 것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5, 17

**丑** 37년생 하나의 현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49년생 간절함을 추진력으로 활용하라. 61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겠다. 73년생 결하여 수용하는 편이 낫다. 85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81

**未** 43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지금 즉시 보완해 두어야 한다. 55년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9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자가 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0, 58

**寅** 38년생 상호 불가피한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50년생 독창적인 안목이 절실해 요구되는 시점이다. 62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74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행운의 숫자 : 28, 76

**申** 44년생 영접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감에 상책이다. 56년생 절제하면서도 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원만해야만 좋은 결과를 낳는다. 8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술선수범함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51, 96

**卯** 39년생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하려 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51년생 점차 확대 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63년생 웃고는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다. 75년생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0, 41

**酉** 45년생 지연되어 왔던 바가 급기야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겠다. 57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이리라. 69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81년생 김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9, 67

**辰** 40년생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느니라. 52년생 체면만 잘 한다면 좋은 일이 줄을 이을 것이다. 64년생 기본을 중시해야만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76년생 세심하게 보살피고 쥐야 위기를 잘 넘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8, 84

**戌** 46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58년생 중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다. 70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82년생 잘못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원점으로 복귀하여 재출발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7, 14

**巳** 41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하는 기쁨이 있다. 53년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65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77년생 계획이 아무리 근사하다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행운의 숫자 : 42, 89

**亥** 47년생 핵심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라. 59년생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71년생 분명한 입장에서 서서 절타해도 이행함이 손이러다. 83년생 말을 이기지 않으면서 자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36,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